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구봉도 입구 유희부지

03 특집

추석연휴, 힐링하기 좋은 곳

안산갈대습지공원, 노적봉공원, 호수공원... 다가오는 추석 연휴,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함께 싱그러운 공원 산책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11 생생마을기자단

새롭게 만나는 동네방네 이야기

2019년 8월 출범한 '생생마을기자단', 지역주민의 시선으로 생생한 동네소식을 보고 전한다.

08 인터뷰

선부중 역도부 박혜정

역도 전설 장미란 선수의 고등학교 2학년 기록을 뛰어넘은 중학교 3학년 박혜정 선수를 만나 그녀의 포부를 들어봤다. 박혜정 선수의 발전을 응원하며! 파이팅!

12-13 기획

한 눈에 보는 안산의 전통시장

안산에는 5일장이 열리는 시민시장을 비롯해 7개의 전통시장이 등록돼 있다. 추석을 맞아 먹거리와 볼거리가 득한 시장에서 장도 보고 추억도 만들어보자.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리는 한가위. 추석이면 뉴스에서는 늘 귀성행렬, 고속도로 정체 등 민족대이동이라는 말까지 사 용한다. 하지만 휴일에도 고향이나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거나 더욱 그리워지는 사람들을 안산에서 찾을 수 있다. 연휴에도 일터에 나가야되거나 고향이 멀어 갈 수 없는 공단 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안산에 정착해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 주민, 역사의 아픔 속에 가족과 떨어지고 고향과 떨어진 고려인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해 추석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운 이웃들 이 가까이 존재한다. 이런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나 프 로그램들이 9월 추석연휴 동안 준비되고 있어 소개한다.

마음 넉넉한 추석, 외로운 이웃의 손을 잡다!

추석맞이 전나눔 행사 “마음담아전(煎)해요”



추석 명절하면 한 해의 풍족한 먹을거리가 먼저 떠오른다. 특히 명절의 대표 음식 '전'을 부쳐 이웃과 나누는 봉사활동 이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하 는 추석맞이 전 나눔 행사는 9월6일과 7일 이틀간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열린다.

행사에서 준비된 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인 독거 노인 가정,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명절이 외 로울 고려인 가정, 다문화 가정에도 전달된다. 다양한 종류 의 전과 함께 송편까지 더해져 안산 지역 1천200가구에 나 눴이 실천된다.

일시: 2019.9.6.(금)~9.7.(토) 오전9시 ~ 오후2시
장소: 행복나눔터(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15)
주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031-411-9362)

제3회 고려아리랑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굴복하지 않는 고려 인의 용기 제3회 고려아리랑' 행사가 9월7일 오후 3시 선부 광장에서 열린다. 전국적으로 10만 가까운 고려인이 살고 있 는데 안산에만 1만8천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그만큼 안 산에서 고려인들은 가까이 살아가는 이웃이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 먹을거리가 있으 며, 잘 모르고 있던 고려인의 독립운동 역사도 확인할 수 있 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역사의 아픈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2019.9.7.(토) 오후3시~9시
장소: 안산시 선부광장
프로그램: 고려인 독립운동 전시, 제3회 고려아리랑 기념식, 고려인 음식문화 체험, 고려인 퍼레이드 등
주관: (사)너머 (031-493-7053)

2019 행복나눔 추석한마당 축제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다문화가족행 복나눔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9월12일 행복나눔 추석한마당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타국에서 노동에 지친 외국인 근로 자, 친정과 고향이 그리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추석 명절이 외로운 시간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6년째 개최하 고 있다.

한마당 축제라는 이름처럼 각 국의 음식을 나눠 먹고, 서 로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9월13일 추석 당일에는 250여명의 외국 인 근로자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예정이라고 한다.

일시: 2019.9.12.(목) 오후 2시~5시
장소: (사)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야외마당 (단원구 신천로 2길 9-9)
프로그램: 외국인 장기자랑 대회, 세계 요리 체험, 한복 체험,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
주관: (사)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070-7701-3636)

이주 외국인 축제

2019 추석맞이 스리랑카 공동체 문화페스티벌
일시: 2019.9.12.(목) 오후 1시 ~ 자정 / 장소: 안산능안운동장
주관: 안산시 스리랑카공동체 / 프로그램: 스리랑카 운동 크리켓 대회, 스리랑카 가수 초청공연 등

2019 추석 캄보디아근로자 위문 콘서트
일시: 2019.9.13.(금) 오후 1시 ~ 오후 8시 / 장소: 안산 온누리운동장
주 관: 주한캄보디아대사관 / 프로그램: 추석맞이 캄보디아 근로자 위로 콘서트 (가수 공연)

2019 Global Culture Festival
일시: 2019.9.14.(토) 11:00 ~ 17:00 / 장소: 안산문화광장(물의광장)
주관: 안산시 캄보디아공동체 / 프로그램: 캄보디아 등 전통공연, 가수 공연 등

황정욱 명예기자 : loosedom@hanmail.net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분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친지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연휴 동안 멀리 가지 않고 안산에서 보낼 계획이라면 이곳을 찾아보자.

안산갈대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은 국내 최초의 인공습지로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 교육 공간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공원이다.

8월 중순, 태풍이 지나고 하늘이 높고 푸르다. 갈대 군락지는 하늘과 맞닿아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짙은 햇빛과 보드라운 바람은 갈대 머리를 쓰다듬듯 다정하다. 갈대습지공원에 서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듯하다.

갈대습지공원은 환경생태관, 습지 관찰로, 생태연못, 자연 에너지 체험장, 조류 관찰대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환경생태관에는 시화호의 역사와 습지와 관련된 생태자료가 전시돼 있다. 2층에 올라가면 망원경으로 주변 습지경관과 철새들을 볼 수 있다. 공원 입구에 조성된 생태연못과 습지 관찰로, 조류 관찰대 등을 통해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보호생물과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갈대습지공원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9월에는 토요일에 씨앗목걸이 만들기, 일요일에 휴지심을 이용한 연필통, 보관통 만들기를 진행한다.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고 체험할 수 있다. 연휴기간 동안 추석 당일은 휴장한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116(사동)
이용시간 : 동절기(11월~2월) :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하절기(3월~10월) :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장 / 추석 당일(9월 13일) 휴장
문의 : 안산갈대습지공원(031-481-3810)



안산갈대습지공원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단원구 고잔 신도시에 조성된 64만9천 여 m²(약 20만 평) 크기의 근린공원이다. 다양한 체육시설과 공연장, 광장, 갈대습지, 산책로 등이 조성됐다. 공원 둘레의 3.6km 길이 산책로는 인근 주민들의 체력단련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호수공원은 고잔동, 초지동, 사동 등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평지공원으로 온 식구가 함께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인근에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책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갈대습지까지 이어진 수변공원이 가까이 있어 이동하기 편리하다.

공원을 둘러싸고 안산천과 화정천이 흐르고, 두 하천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공원에는 여러 산책로가 있다. 미로처럼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온통 푸르름에 마음이 싱그러워 진다.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노래도 흥겨운 안산호수공원. 시간이 여유롭다면 돛자리 쉼터가는 것도 잊지 말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9
문의 : 안산시 공원과(031-481-3554)



노적봉공원

노적봉공원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안산시민의 여가 활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1998년 1차 조성사업, 2004년 2차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폭포와 주변 시설 등이 추가로 마련됐다.

공원 둘레에 2.6km의 순환로가 조성되어 있고, 장미원, 철쭉원, 운동시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도섬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특히 공원 둘레길은 사계절 내내 체력 단련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깊고 울창한 숲 사이를 걷는 듯한 느낌은 노적봉 산책로만의 특징이다.

노적봉폭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로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된다. 폭포와 분수는 시간별로 번갈아 가동되는데 매 정시부터 45분간 가동되고 15분간 멈춘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폭포의 물줄기는 웅장하고 청량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산39-1
폭포가동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분수 - 짝수 시간 / 폭포 - 홀수 시간)
문의 : 안산시 공원과(031-481-2649)

이선희 명예기자_ iamyou70@hanmail.net



노적봉공원



노적봉공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서비스 무료로 신청하세요

여성 1인 가구 ·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점검 장비도 대여 가능



안산시가 8월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대상 시설을 확대, 여성 1인 가구와 다중이용시설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452개소를 대상으로 2명의 인원이 상시 점검을 추진했으나, 8월부터는 인원을 4명으로 확대해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팀이 수시로 점검

에 나선다. 점검대상 시설도 여성 1인 가구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및 탈의실까지 확대했다.

홀로 사는 여성이 신청할 경우 여성으로만 구성된 점검팀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집 내부는 물론 현관문 근처까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체육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과 탈의실, 민간소유 화장실의 경우 건물주, 건물관리인 등과 협의 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식업과 숙박업소, 공공기관은 시에서 보유 중인 불법촬영 점검 장비를 무료로 빌려줘 자체 점검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전파탐지기 34대, 렌즈탐지기 32대를 보유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며,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스티커 부착 등 현장에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사항을 기재하거나 여성안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

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 및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간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하는 합동점검도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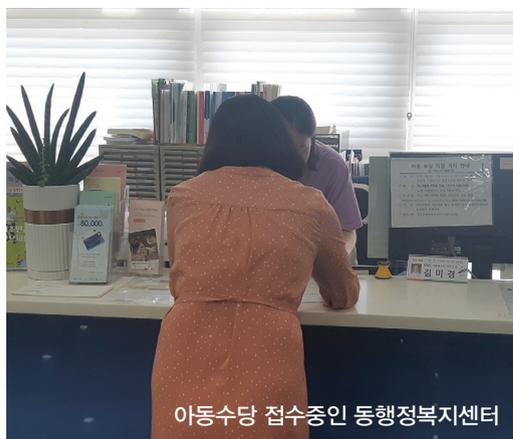
시 관계자는 “2017년 기준으로 안산시에 홀로 사는 여성은 2만9천여 명으로, 홀로 사는 여성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산시 구석구석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 민간 합동점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점검을 희망하는 여성 1인 가구와 다중이용시설 건물주 또는 관리인은 시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 홈페이지 내에서 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전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점검은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여성 1인 가구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점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319)
방문점검 신청 이메일(jssar@korea.kr / with7156@korea.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안산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만 6세 되어 지원 중단된 만 7세 미만 아동은 동에서 직권 신청



아동수당 접수중인 동행정복지센터

안산시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12년 10월 이후 출생자)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는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안산시에서는 4천300여명이 늘어난 약 3만1천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된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계획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 요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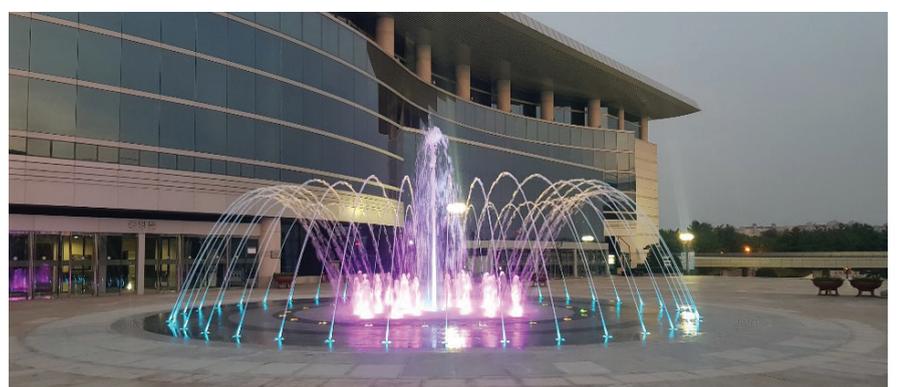
아울러,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9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 및 9월까지 미 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 안내를 통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319)

화려한 조명에 시원한 물줄기 내뿜는 음악분수

문화예술의전당 찾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화려한 조명에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음악분수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름 15m의 바닥형 분수 설치 공사를 8월 초 마무리하고, ‘2019 여르미오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음악분수를 가동하고 있다.

음악분수는 공연·관람을 마친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람 후의 감흥과 여운을 이어가도록 하는 한편, 공연·관람 목적이 아닌 시민들도 편하게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야간에는 노랑, 파랑, 보라 등 화려한 조명이 더해져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예술의전당을 찾은 가족, 연인들에게 근사한 쉼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8월10일 ‘2019 여르미오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예술의전당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막점점식 등 가동을 알린 음악분수는 안산시립합창단의 공연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분수 쇼로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는 9월 말까지 매일 5차례(오후 1·3·5·7·8시) 30~40분씩 음악분수를 운영하며, 날씨 및 공연일정, 시민들의 호응 등에 따라 탄력운영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의전당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길 바란다”며 “음악분수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7)

INTERVIEW

‘혼자가 아닌 함께 해낸 도전’, 줌마 탐험대를 만나다.

• 김영애(‘안산시 줌마 탐험대’ 참가자)



안산시 기혼여성들로 구성된 해외 탐험 원정대인 ‘2019 안산시 줌마 탐험대’가 7월19일부터 시작된 18박 19일의 히말라야 무스탕 트레킹 도전을 마치고 8월 6일 돌아왔다. 안산시체육회에

서 여성 의 도전정신과 희망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는 취지로 안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혼 여성을 모집 해 면접 및 체력테스트, 산행테스트를 거쳐 16명을 선발 했다. 큰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안산시 줌마 탐험대’ 참가 자 김영애 씨를 만났다.

Q. ‘안산시 줌마 탐험대’, 어떤 사람들이 다녀왔는지?

줌마 탐험대 대원이 16명이었고, 전문 산악인으로 구조 대 역할과 전체를 이끌 담당자들인 대장·부대장이 있었 다. 또 담당 공무원, 기자, 촬영팀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다녀왔다. 이번 트레킹 일정에는 KBS 2TV 다큐멘터리 ‘영상앨범 산’ 촬영팀이 동행했다.

함께 간 대원들은 모두 기혼 여성이며 대부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었다. 이번 도전을 위해 연차, 월차 다 써서 참여했다. 어떤 분은 마침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운 도전의 의미로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Q. ‘안산시 줌마 탐험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올해가 처음이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대 1의 경쟁률을 통해 선발됐다. 듣기로는 먼저 경기도에 줌마 탐험대가 있었고, 이번에 안산에서도 추진된 것으로 안다. 또 등산을 제대로 배우고 즐기는 여성 등산인을 확대하고 국제 민간외교 활동을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실제 트레킹을 하면서도 현지 학교에 축구공을 기증하

는 등 교류하는 일이 있었다. 함께 간 가이드가 후원하는 학교가 있어 함께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민박 집을 이용하고, 현지인들을 포터로 고용하는 등 주민들에 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취지를 실현했다.

Q. 장거리, 장기간 해외에서 트레킹에 도전했는데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아무래도 고산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 힘들었다. 해발 2천700m 높이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로지 걸어서 가야했다. 3천800m 고지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그러다보니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사람들 은 숨을 헐떡이며 다들 힘들어했다.

트레킹이라 해서 완만한 등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1천m 고지를 가파른 급경사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었다. 마라톤 훈련을 해봤거나 힘든 운동에 익숙한 사람은 그나 마 괜찮았지만 대부분은 고산증세가 두통, 장염 등으로 이 어져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배낭을 나눠들며 끈끈한 단결 력으로 해냈다. 전문 산악인처럼 히말라야 정상을 등반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도전해서 5명이 해발 5천416m 고지 까지 올라갔다 왔다.

Q. 힘든 과정에서도 어떤 순간 행복하고 좋았는지?

나는 그나마 철인3종 경기를 해본 경험과 체력이 있어 대열 후미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이끌어주며 함께 다 녘다. 힘들어하고 생소해하던 동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때 숙소에서 함께 부둥켜안고 울고 했던

것이 너무 기쁘기도 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이뤄냈다는 것,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없던 성취감 때문에 살면서 꼭 한번은 도전 해 보면 좋겠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있다.

Q. 탐험대를 경험한 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대원들이 다들 9월에 있을 생생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다들 포부와 자신감이 많이 커지고 도전의 식도 생긴 것 같다. 다음 목표는 산티아고 순례길 도전인 데 우리 땅에도 걸어볼 수 있는 길이 많으니 지리산 종주 등 우리 길을 경험해보면서 2년쯤 뒤에는 산티아고에 꼭 가보자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Q. 안산특독을 통해 만나게 될 안산 시민에게 한마디

내년에도 줌마 탐험대를 모집하는 것으로 안다. 영상으 로 보는 것과 또 다른 그 자연풍경도 너무 좋았고, 수도나 전기 등 생활적인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 소중함이 여겨져 너무나 감사했다. 또 엄마로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기에 자녀들에게도 긍 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든 일 을 해냈다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꼭 도전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 문의 : 안산시체육회 031-482-282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다음달 18~21일 안산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열려 시, 체전 성공 위해 만반의 준비, 10월 19일 와~ 스타디움에서 개최식



1천350만 경기도민의 축제인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경기도생활체 전)이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안산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안산시는 제30회 경기도생활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월24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데 이어 8월16일 ‘개폐회식 연출 대행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등 41개 경기장에서 24개 종 목(정식종목 20개, 시범종목 4개)이 치러지며,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31 개 시·군 선수단 2만여 명이 참여한다. 1부 15개 시와 2부 16개 시·군이 나눠 치러지며, 각 선수들은 소속 시·군의 자존심을 걸고 실력을 겨룬다.

시는 이번 대회를 ‘생생 가을 대운동회’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8월16

일부터 대회 홍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 설해 운영 중이다.

대회 개최식은 10월19일 오후 4시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리 며, 폐회식은 10월21일 오후 4시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양평에서 열린 제29회 경기도생활체전에서 안산시는 종합 2 위에 해당하는 1부 경기력상 2위를 차지했다. 육상과 볼링, 국학기공에 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축구와 배구, 시범종목인 자전거에서 종합 준우 승을 기록한 성과다. 아울러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모범상을 수상했으 며, 성취상 부문에서도 종합 3위를 차지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6495)



2019 안산생생마라톤대회, 힘찬 레이스... '시원한 대부도 바다 보며 달려요' 풀코스(42.194km), 하프코스(21.0975km), 10km, 5km... 4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아시안게임 육상 3관에 빛나는 임춘애 선수가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2019 안산생생마라톤대회'가 9월8일 대부도에서 열린다.

올해 아홉 번째를 맞는 마라톤대회는 기존 '희망마라톤'에서 '생생마라톤'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개최 장소도 시내에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대부도항기테마파크 일대로 옮겨졌다. 대회는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10km, 5km 4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안산 지역화폐인 다온 상품권과 완주메달, 기록증(5km 제외) 등이 기념품으로 지급된다.

최근 핫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이 화려한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태권도시범단의 절도 있는 무대도 준비됐다.

대회에는 또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인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전 선수와 헝그리정신으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을 차지한 임춘애 전 선수가 홍보대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사인회를 진행하며 참가 선수들과 함께 달릴 예정이다.

축하공연이 열리는 행사장에는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 시설과 특산품코너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며, 바로 인근에서는 제15회 안산 대부도축제가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포도 등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푸드트럭과 먹거리 장터 등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단원구청과 대부도를 오가는 123번 버스는 대회당일 기존 13대 52회 운행에서 16대 64회로 늘린다.

안산시 관계자는 "2019 안산생생마라톤대회는 대부도의 청정바다를 따라 달리는 볼거리 많은 꿈의 레이스로 참가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열정이 생생도시 안산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
소식通

안산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

안산시는 상가주변에 흩날리는 명함,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의 운영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광고물 속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경고멘트로 해당 광고주에 대한 위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어 불법광고물의 광고효과 기능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점조직으로 무차별 살포되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던 전단지 등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의 본격 운영에 앞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실시하여 기존 전화번호 광고기능 저하와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건축디자인과(01-481-240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고 '보조금 지원' 받으세요



안산시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 상반기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천886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하반기에는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 3천30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등)로,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고 신청자가 그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자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보조금과 신차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천만 원까지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거리로 나온 예술가들 시민과 문화 힐링 가져 6월부터 10월까지 아마추어 예술인 · 동호인 등 50여팀 공연



이선희의 '강산' 등을 연주해 열대야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을 안겨줬다. 일부 시민은 무대 앞으로 나와 춤도 추며 거리로 나온 예술가와 함께했고 객석에 앉은 시민들도 아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무더운 여름속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최성임씨는 "그동안 많은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해왔는데 안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직접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영씨는 "안산에 살면서 그동안 수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안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친구들과 함께 재능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안산시 주관으로 아마추어 예술인(동호인 포함)의 자생적 거리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으로 무대에 서기 힘든 예술인과 단체의 활동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줘 아마추어들의 자생력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안산시는 올해 50여개 아마추어 예술인 및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고, 이들이 안산의 거리를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9월 6일과 20일에는 안산문화광장에서, 25일에는 노적봉폭포공원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10월에는 김홍도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문화광장 · 선부광장 · 상록수역 · 노적봉공원 무대 '찾아가는 문화힐링 2019 거리로 나온 예술'이 지난 6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에도 시내 곳곳에서 8차례 열리는 등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공연 장소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산문화광장, 선부광장, 상록수역, 노적봉폭포공원 등으로 대부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공연한다. 8월9일 상록수역에서는 음악인 최성임과 이재영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재영씨는 기타를 치며 이정선의 '봄'과 다른 많은 가수들의 감성 있는 노래를 불러 더위를 달래 주었으며, 최성임씨는 오카리나 반주와 하모니카 연주로 양희은의 '한계령'과



국제 관광박람회서 안산관광 매력 뽐내 대부포도축제 · 김홍도축제 등 다양한 축제, 안산9경 홍보 '성공적'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설치된 안산시 홍보관

안산시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안산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대표 특산물을 알렸다. 8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 박람회는 올해 4회째를 맞으며, 국내외 문화, 의료, 뷰티 등 국내 · 외 관광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안산시는 안산 한 바퀴, 대부해솔길 등을 주제로 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안산9경을 소개했으며, 관광홍보 동영상을 통해 안산관광의 매력을 발산했다. 아울러 안산시 대표 특산물인 그랑꼬또 와인과 대부김을 맛볼 수 있게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안산의 맛을 소개했다.

10월 예정된 김홍도축제와 9월 진행되는 대부포도축제를 홍보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안산9경과 김홍도 씨름이 그려진 퍼즐 맞추기 이벤트를 운영해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며 안산관광의 매력을 소개했다"며 "9월부터 예정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국 9개 지역신문이 공동 주최, 370여개 지자체와 업체 등이 참여했고 3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2722)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태극기 · 만국기 물결 안산시, 제74회 광복절 맞아 내 · 외국인 축하의 장 마련



태극기와 만국기가 휘날리는 다문화마을특구

안산시외국인지원본부는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다문화마을특구 홍보와 내 · 외국인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올 10월말까지 특구 내 도로와 거리 곳곳에 태극기와 만국기를 함께 게양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시작된 태극기 게양은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유도, 그리고 안산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102개국 8만6천여 명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주민들이 가장 밀집한 특구 경계구역 도로 2.35km구간과 다문화 중심거리 340m 구간에 가로기와 배너기 형태의 태극기(66점)와 만국기(58개국 66점) 총 132점을 나란히 게양했다.

특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나영미씨는 "특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있는 자국 국기를 신기해하고 좋아한다"며 "외국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큰 만큼 시민과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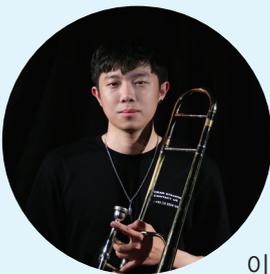
◇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031-481-3623)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 · 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심플한 아이템으로 사업 확장까지 이뤄낸 유호컴퍼니



안산시 청년큐브 예대캠프에 입주한 음악 전문 멀티숍 유호스토어는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사명을 유호컴퍼니(대표 최유호)로 변경했다.

기존의 유호스토어는 대표의 이름을 걸고 음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설립한 브랜드이다. 대표 아이템은 'A4 절취 음악노트'다. 매우 심플한 제품이지만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최 대표는 첫 번째로 음악인들 모두가 사용하는 아이템을 찾았다. 악기 줄 같은 제품은 현악기 종사자와 같이 특정 음악인만 사용함으로 제외했다. 주변의 많은 음악 전공 친구들을 살펴본 결과,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인 '노트'를 발견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노트의 불편한 점을 찾았다. 음악인들은 노트에 악보를 작성한 후 뜯어서 파일에 보관하거나 교수님께 제출하는데, 깔끔하게 뜯어지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트에 절취선을 넣었다. 세 번째로 서울예대 학생들에게 검증을 받았다. 최 대표는 서울예대 학생들에게 인정한 제품은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나아 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현재 'A4 절취 음악 노트'(4천500원)는 1차 완판을 달성하고 2차 판매를 진행 중이며,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만 판매했던 것을 세계무대인 아마

존에도 입점시켰다.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전공인 최 대표는 음악을 절대 놓을 수 없었기에 사업을 확장했다. 붐 비트와 유호림 펑크 유닛이라는 팀을 이끄는 매니지먼트를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브라스 밴드 붐비트는 힙합을 중심으로 가요를 연주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연주가 가능하고 음향장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밴드 음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즈 밴드 유호림 펑크 유닛은 2019 청춘마이크에 선정되고 '갯줄라잇' 재즈바에서 전속 공연을 하고 있다. 팀원과 장기간 호흡을 맞췄고 한국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구성으로 신나는 펑크와 재즈, 빅밴드 음악까지 연주가 가능하며 특이한 구성의 특징을 살려 편곡한 뉴트로 재즈와 펑크를 연주한다.

최 대표는 사업가와 연주자를 병행하면서도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 문의 : 유호컴퍼니 최유호 대표(010-5546-0393)
인차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대표아이템 절취음악 노트

‘교과서로만 보던 과학의 원리를 눈앞에서’ 한양대 ‘이공계 과학체험교실’ 열띤 호응



로봇을 제작중인 양지고 학생들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가 안산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공계 과학체험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한양대 과학기술융합대학은 화학 분자공학과 · 응용물리학과 · 해양융합공학과 · 나노광전자학과 교수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며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학을 실험으로 쉽고 흥미 있게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벗어나 직접 실험을 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며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 있다.

과학체험교실은 한양대가 2012년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는 8월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한 양지고등학교 학생 59명은 화학(갈바닉 전지), 물리(줄의 정상파 실험), 해양융합(해양파랑 속도와 지진해일), 나노광전자(기능성 레고를 이용한 탐구 로봇제작) 등 4개 강의를 들었다.

학생들은 화학수업에서 갈바닉 전지를 직접 제작하면서 전기의 발생 원리 속 다양한 전기 화학적 반응을 배우

며 전지의 원리를 이해했다. 해양융합 강의에서는 미니 조파수로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해양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파랑을 직접 보며 특성을 배웠다. 누구나 좋아하는 레고를 이용한 나노광전자 수업에서는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을 진행, STEM(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Math 수학) 교육을 통해 로봇의 구성 및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물리 수업에서는 줄의 정상파 실험을 통해 줄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파동 등의 현상을 탐구하는 등 직접 체험하며 응용과학의 기초를 배웠다.

학생들은 교수와 조교들의 도움으로 실험을 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얻었고, 한양대는 안산시가 교육 특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강용한 한양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응용과학이 많이 발달됐지만, 과학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분야를 더욱 연구해 국가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INTERVIEW

‘제2 장미란’ 넘어 ‘제1 박혜정’이 되고 싶어요

장미란 선수 고2 기록을 중3에 넘어선 박혜정 선수



지난 7월25일 2019 전국 시도 학생역도경기대회에서 박혜정(선부중) 선수가 여자 중등부 최종량급(81kg 이상) 경기에서 인상 111kg, 용상 148kg을 들어 합계 259kg으로 금메달은 물론 중학생 신기록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역도 전설인 장미란 선수의 고2 기록인 235kg도 넘어섰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역도 유망주 박혜정 선수를 만났다.

Q.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는 척을 하거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은 아직 없었지만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Q. 역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장미란 교수님의 올림픽 영상을 봤어요. 마치 내가 현장에 가 있는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러곤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고, 안산시체육회에 직접 찾아가 역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Q. 역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이 강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집에서 물을 사 먹는데, 생수 두 묶음(한 묶음 2리터들이 6병)을 한 손에 들고 옮길 때

다른 사람보다 힘이 강하다고 느꼈어요.”

Q. 역도를 시작하고 언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나요?

“훈련 3일차에 바벨을 착각해 들고 보니 70kg이었고, 코치님도 놀랐어요.”

Q.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고 있는데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장미란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장미란’이라고 불리는 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교수님을 넘어서 꼭 ‘제1의 박혜정’이 되고 싶어요.”

Q. 박혜정 선수의 일상을 알려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을 하고 일요일만 쉬어요. 특별한 취미는 없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가장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는 양팡이예요.”

Q. 마지막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좋은 기록과 함께 역도를 인기 종목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들의 훈련 여건도 좋아지고, 안산시의 역도 실업팀이 생겨서 지금 함께 훈련하고 있는 동료 선수들과 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선부중학교 역도부에는 박혜정 선수 외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올해 경기도 민체전에서 7개의 메달을 따내는 등 전국적으로도 선부중 역도부는 최고로 꼽힌다. 입학과 동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도가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현 코치는 “역도가 몸에 근력을 높여, 요즘 자세가 안 좋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집중력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조선 대표화가 단원 김홍도의 고향 안산에서 열리는 풍류여행 '작품 속 조선시대를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시'는 10월 11~13일 화랑유원지에서 우리나라 대표 인문자산인 김홍도를 주제로 한 '안산 김홍도 축제'를 개최한다.

안산 김홍도 축제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주제로한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올해는 안산의 대표 축제 장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안산문화광장으로까지 행사공간이 확대되고, 기존 오후 6시 마무리되던 행사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김홍도 축제'에는 베타작, 무동, 서당, 주막 등 단원의 작품에 나타난 조선시대 생활상을 생생히 재현한 김홍도 마을이 조성돼 당시 서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존과 열기구, VR을 갖춘 다채로운 놀거리존 등 60여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홍도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통공연은 물론 동춘서커스, 줄타기 등 이색공연도 즐길 수 있다.

특히, 10월12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5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세계 의상 및 한



복패션쇼 및 '2020 안산 방문의 해' 선포식도 열릴 예정이다. 올 가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만한 지역 대표축제를 찾고 있다면 안산 김홍도 축제를 방문해보자.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

신중년 일자리 시리즈



아이들의 협동심 · 성취감 · 자존감 키워주는 요리 수업 아동요리지도사... 주부 경력 살려 일자리 창출까지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장금자선생님

가정살림을 하면서 주부의 경력을 살 수 있는 일자리로 '아동요리지도사'가 있다. 아동요리지도사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중 ·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직업진로체험 지도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안산시의 각급 학교는 아이들의 계발을 돕는 다양한 활동의 하나로 요리 수업을 진행한다.

5년 차 방과 후 아동요리지도사로 활동해 온 장금자(사동 · 54) 씨는 집안일 중에서도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던 자신의 경력을 살려 2015년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진행한 아동요리지도사 과정을 수료했다. 주 5일, 하루 4시간 씩 4개월 과정을 밟으면서 아동요리 이론과 실습, 교수법을 배웠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수업은 즐겁고 보람 또한 크다"는 장금자 씨는 "아이들은 모둠으로 이뤄지는 요리실습을 통해 협동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성취감과 커지는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다음은 장금자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 아동요리수업은 몇 학년부터 가능한가? 연령별 단계별 맞춤 수업으로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가능하다.

Q. 메뉴는 어떤 게 있나? 쿠키 · 스콘 · 검정깨 스틱 같은 과자류와 브라우니 · 계란빵을 포함한 빵류, 떡꼬치 · 과일 청 · 젤리 · 피클 · 잡채 · 참치 샐러드 · 제육불고기 · 치킨스톡프라이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가 있다.

Q. 아동요리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면 학교 수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과정 중에는 강의 시연이 있다. 수업대상학년을 정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동기생들과 교육관계자 앞에서 모의 수업을 몇 차례 하고,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나간다.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떤 주부라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좋아하는 주부라면 금상첨화다.

Q.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수업시수에 따라 달라진다. 초등학교는 월4회 수업에 학생 1명 당 2만5천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중 ·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당 3만5천원의 강사료가 책정돼 있다.

Q. 수요처(강의할 수 있는 학교)는 어떻게 찾나? 매년 12월이 되면 안산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 지도교사 모집공고가 나온다. 또 어린이집이나 마을학교, 지역의 다양한 센터에서 수업의뢰가 온다.

Q. 아동요리지도사 활동의 어려운 점은 없는가? 좋은 재료를 찾아서 일일이 장을 보고, 다듬고 씻어서 개인 · 모둠 별로 나누는 일이 어렵다. 힘과 시간을 많이 쏟게 된다. 하지만 즐겁게 수업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이끄는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크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따뜻한 나눔소식

백운동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에 시원한 수박 전달



백운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길)는 백운동 관내 경로당 4곳을 방문해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시원한 수박을 전달했다.

신길동자유총연맹 경로당 삼계탕 나눔 행사



신길동자유총연맹(회장 박영진)과 후원업체 대표들이 말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위해 직접 관내 경로당 16개소를 찾아 삼계탕을 전달했다.

본오2동통장협의회 경로당 나눔 행사



본오2동통장협의회(회장 이간희)는 관내 경로당 5곳을 방문해 수박, 족발을 전달하며 경로당 내 냉방용품의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산동새마을회 마늘종으로 사랑 나눔 실천



안산동새마을남 · 녀지도자협의회(회장 이부규, 강경자)는 충남 서산의 마늘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마늘종으로 장아찌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PLAY

TV조선 네트워크 매거진 (8월 5일)
시정소식 홍보

MBN 생생정보마당 (8월 8일)
'안산 스테이션-A' 생방송

tvN 드라마 (8월 20일)
'60일 지정생존자' 안산 방영

MBC (9월 2일 오후 11시 5분)
풍도 다큐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신규 편집위원 위촉 정원 10명으로 확대... 현직 언론인 · 문학인 등 다양한 분야 참여

안산시는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8월 8일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의 편집위원회에 언론인과 문학인 등 6명을 새로 위촉했다. 기존 7명 정원으로 운영하던 편집위원회를 신규 편집위원 위촉을 계기로 10명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이들은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등 자문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은 현직 언론인 2명과 문학단체장 2명 등 4명과 디자이너와 어린이집 원장 각 1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편집위원은 봉사단체·문화단체·경기테크노파크 연구원 등 3명과 당연직인 안산시청 공보관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신규 위촉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편집위원이 시정소식지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보다 양질의 시정소식지가 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편집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며, 매달 한 차례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통해 시정소식지 편집회의에 참여한다. 시정소식지의 기본적인 편집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안산시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명예기자들이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하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편집



8월 8일 진행 중인 시정소식지 편집회의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5만부를 발행하며, 구독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42)로 신청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

◇ 문의 : 공보관(031-481-2042)

주민이 전하는 동네소식 '생생마을기자단' 출범 25개 동 주민 · 다문화 가정 주민 28명 참여



8월 7일 출범한 '생생마을기자단' 위촉식

안산시는 동네 소식과 각종 행사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생생마을기자단'을 위촉하고 운영에 나섰다. 기자단은 안산시 25개동에 각각 거주하는 주민과 다문화가정 주민 3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이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흥미롭거나, 널리 알릴 수 있는 미담 사례를 기사로 작성해 안산시 블로그로 전달한다. 아울러 '우리 마을, 안녕하세요!'라는 주제로 안산시 유튜브 방송에 참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시는 생생마을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사진이 새겨진 기자증을 전달하는 한편, 블로그용 기사 작성법과 마을 소식 취재 방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시는 생생마을기자단 운영을 통해 '우리 동네 이야기'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홍보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2768)

얼음물에 발 담그고, 수박화채 먹으며 토크 삼매경 안산호수공원 수영장에서 유튜브 생방송



학생과 인터뷰하는 이문재 홍보대사

안산시는 8월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여름나기 꿀팁'을 소재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는 안산시 홍보대사 개그맨 이문재, 김수연 수영강사(안산선부수영장)가 출연해 '내가 보낸 최고의 여름휴가'를 주제로 한 토크와

수영장 이용 시 주의 점, 도심 속 물놀이장 소개 등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나만의 꿀팁'을 소재로 재밌는 입담을 풀어냈다. 특히 여름이면 떠오르는 수박화채를 직접 만들며 수영장에 온 시민들로부터 맛 평가를 받는가 하면, 얼음으로 가득 찬 대야에 발을 담그고 안산에서 보내는 휴가지 추천 등 평소 볼 수 없었던 소탈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안산시의 도심 그늘막, 무더위 쉼터, 폭염대응반 운영 등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시원한 정책들도 소개하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안산시 관계자는 "막바지 여름휴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며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한 분들에게 가까운 대부도를 추천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에서 '안산시유튜브'를 검색해 최근 방송콘텐츠로 볼 수 있다. 안산시 유튜브는 주요 시정 소식 소개는 물론, 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생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3126)

우리동네 이야기

안산시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 25명과 다문화가정 주민 3명으로 꾸러진 안산시 생생마을기자단은 2019년 8월 7일을 시작으로 마을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보세요.

사동



다민족 정서와 다문화 감성을 깨우는 '다정다감 프로젝트'

상록구 사동은 인구 3만 8천여 명, 그 중 외국인이 1천 800여 명인 마을입니다. 사동 소재 석호초등학교는 900여 명의 재학생 중 200여 명이 외국인이며 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호초등학교가 다문화예비학교로 선정되며 석호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사동 주민협의회가 힘을 모아 문화다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동 / 정화영 마을기자



월피동

골목길 소통 한마당

무더운 8월 주말, 깨끗하고 안전한 월피동 만들기 위한 '골목길 소통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작은 골목축제가 열린 월피동 부루지어린이공원을 다녀왔어요. 너무도 무덥고 뜨거운 날이었지만 월피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신나는 행사이기에 행복하고 즐거운 작은 축제였습니다. 놀고 체험하고 또, 먹을 수도 있는 작은 축제가 앞으로 월피동 이곳저곳에서 열린다고 하니 더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월피동 / 김고미 마을기자



초지동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초지동행정복지센터로 놀러오세요~

친근한 이웃, 소통하는 마을, '더 행복한 초지동'을 슬로건으로, 마을발전과 이웃소통을 위해 뜨거운 여름에도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가 마음과 힘을 모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초지동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냉커피와 다양한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초지동 / 김혜영 마을기자



신길동

말복맞이 옥수수·수박 나눔행사

신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8월9일, 관내 16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유희부지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와 수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작지만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의 즐거움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길동 / 장정아 마을기자



9월 '낭만정원 축제' 열린다

신길동에서는 9월 28일 '낭만정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낭만정원 축제는 신길온천역 주변에 심은 코스모스가 활짝 피는 시기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낭만정원 축제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진 캐릭터 '도담이'와 여러 포토존 의자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코스모스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신길동 / 장정아 마을기자



다문화

여름방학 세계문화 체험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강당에서 201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세계문화 체험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참가한 학생 중에는 일반가정 학생도 있고, 다문화 가정 학생도 있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작품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보니 제 얼굴에도 절로 웃음꽃이 피어나네요.

다문화 / 황려미 마을기자





시원한 가을바람 쐬며 즐기는

전통시장 나들이

먹거리·볼거리 가득한 전통시장 나들이로 저렴하고 실속 있는 쇼핑에 추억은 덤!
추석 제수용품에서 선물까지 저렴하게 사보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의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처럼 웃음과 먹거리 가득한 추석 연휴가 되길 바라며 안산시의 전통시장 7곳을 소개한다.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제수용품에서 추석 선물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만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겨움과 푸근함까지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에는 오늘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안산시민시장은 다양한 농수산물과 각종 의류·잡화는 물론, 5·10일마다 5일장도 열려 볼거리도 가득하다. 물건을 사고파는 시민들로 가득한 시민시장에는 하루 평균 1천500여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도 특별장이 열려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에는 시민시장만큼이나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이 많다. 신안프라자, 스타프라자, 월드프라자, 신안코아, 패션타운, 안산 다농마트 등이 현재 안산시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다. 전통시장 인정의 기본 요건은 1천㎡ 이상의 면적과 50개 이상의 점포, 상인·토지주·건축주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돼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현대화, 경영 지원 등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시원한 바람을 쐬며 가족들과 먹거리·볼거리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실속 있게 쇼핑해보는 건 어떨까.

시민시장

개설연도: 1997년
점포수: 410개
편의시설: 주차 287면, 화장실 3개소
주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문의: 031-411-1040

함께하면 더 즐거운 우리 전통시장~



골목경제를 살리는
안산사랑 상품권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9월 한달 10%혜택





다농마트

개설연도: 1992년
 점포수: 395개
 편의시설: 주차 100면
 화장실 18개소, 고객지원센터
 주소: 안산시 상록구 예술공원로 1
 문의: 031-410-6666



스타프라자

개설연도: 1986년
 점포수: 233개
 편의시설: 주차 182면, 화장실 7개소
 주소: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3
 문의: 031-482-5067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소확행~



신선함이 100배
 눈으로 보고 사는
 즐거움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월드프라자

개설연도: 1993년
 점포수: 202개
 편의시설: 주차 61면, 화장실 4개소
 주소: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60
 문의: 031-407-0951



신안프라자

개설연도: 1993년
 점포수: 182개
 편의시설: 주차 182면, 화장실 7개소
 주소: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54
 문의: 031-406-2104

안산패션타운

개설연도: 2001년
 점포수: 192개
 편의시설: 주차 200면, 화장실 8개소
 주소: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 45/49
 문의: 점포마다 상이



신안코아(복합청년몰)

개설연도: 1993년
 점포수: 166개
 편의시설: 주차 60면, 화장실 4개소
 주소: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15
 문의: 031-406-2105



‘세상 모든 어려움에 세월을 넣고 버무리니 편하고 좋은 인생이 되더라’ 여덟 할머니 보약같은 인생 이야기... 생애 되돌아 보며 이해와 용서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고잔문화복지센터 ‘쉽과 힘’은 지난 2016년부터 ‘화정천 옛이야기’ ‘고와선’ ‘할머니에게 듣는 고잔동 이야기지도’ 등 고잔동과 와동, 선부동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의 과거와 변화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줄곧 해오고 있었다.

격랑의 시대 속에 맨몸으로 부딪쳐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하여 올해 독거 어르신들의 공유공간 ‘안나의 집’에 참여한 어르신 여덟분의 생애를 직접 구술한 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다.



‘나야 지금은 환하게 피고 살잖아’ ‘지금 제일 편하고 좋아’ ‘나는 복 많은 사람이야’ 등 여덟 할머니들의 직접 한 말을 제목으로 하여 나온 이 책은 ‘쉽과 힘’의 임남희 사무국장이 지난해부터 할머니들이 구술한 생애사를 구술한 그대로 풀지 않고 좀더 시적이고 간결한 언어로 정리하였다.

여덟 분의 할머니들은 자신의 일생을 찬찬히 풀어내며 정리함과 동시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돌이키며 어느덧 이해와 용서를 베푸는 자신을 보며 치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 할머니는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힘든 고비마다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이제 돌이켜보니 알 것 같다”며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어려운 시대에 가족을 위해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한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한글 공부를 했는데 내 이야기가 글자로 나오게 그저 “대견하고 신기하다”며 책을 넘기기도 하였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할머니들의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와 비밀들이 할머니의 말뿐 아니라 기성 시인의 입을 빌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산에서 수십년을 살다 소원이던 태안에서의 삶을 채 일 년도 마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남편의 이야기를 나태주 시인의 ‘부부.1’이라는 시로 풀어낸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별이 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꽃이 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돌이 되지만
두 사람 모두 살아 돌아 오기도 한다.

임남희 사무국장은 “앞으로 할머니들의 구술 생애사를 더 펴내고 싶다”고 하면서 “책은 그저 결과물일 뿐 할머니 한분 한분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되는 시간, 자신의 생애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소중하다. 또한 이러한 기록이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문의 :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고잔문화복지센터 쉽과 힘(031-480-0075)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
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도심 속 공원에서 체험하며 배우는 숲 나무소리 직접 듣고 자연을 즐겨요!... ‘꾸러기 숲속 교실’ 운영

푸른 녹지의 숲보다 도심 속 빌딩숲이 익숙한 아동들이 공원에서 나무 한 그루를 관찰하고 있다. 어떤 아이는 청진기를 나무에 대고 물소리를 듣고 있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나무와 나뭇잎, 풀잎 등 평소에도 쉽게 만질 수 있지만, 숲 해설가의 설명이 곁들여지면서 자연의 소중함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다.

안산시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활동인 공원체험 ‘꾸러기 숲속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공원에서의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면서 올바른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숲속 교실에는 숲 해설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강사가 참여하며, 하루 2시간씩 화랑유원지, 호수·노적봉·구룡·본오·와동공원 등 안산시를 대표하는 공원에서 진행된다.

20명 내외로 운영되는 공원체험은 ‘자연생태 체험’을 주제로 계절의 꽃과 식물을 확대경으로 관찰하며, 청진기를 이용해 나무 속 물소리와 땅속 소리를 듣기도 한다.

한창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나무와 풀잎의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다.

시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교실을 운영하며, 참여하려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일부터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야외 수업이 어려울 때는 실내교실 또는 식물원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꾸러기 숲속 교실은 공원에서 진행되는 체험 외에도 ‘부모와 함께하는 숲 체험’, ‘공예체험’도 운영되며,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공원과(031-481-2414)



푸른 지구를 위한 날갯짓 ‘청소년에너지서포터즈’

안산시 청소년 280여명, 에너지 교육과 캠페인 활동 펼쳐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안산시 청소년 280여명이 청소년에너지서포터즈로 에너지절약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안산시와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청소년서포터즈 활동은 8월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에너지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발대식 참여자들은 북곡곰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청소년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나만의 환경마크’를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장소를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으로 옮겨 에너지절약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별로 레고블록을 이용해 미래의 에코시터를 만들어 발표하고, 캠페인 도구를

직접 제작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시민이 에너지다’, ‘절약이 발전소다’ 등 다양한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스티커를 이용해 에어컨 온도설정과 대중교통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 보기도 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직접 견학하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서포터즈는 에너지의 날 소동행사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각 동네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돌며 소동행사를 알리는 전단지 배포하고 에너지 캠페인을 진행한 후, 오후 9시부터 10분 동안 동별로 진행된 소동행사의 소동률을 체크했다.

유미화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상임위원장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환경과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는



‘나만의 환경마크’를 만든 청소년에너지서포터즈

것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할 좋은 기회”라며 “올해는 레고와 환경마크 등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주도형 에너지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 어느 해보다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은 “열종동 물과 미래세대를 위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에어컨 온도 줄이기,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녹색소비자연대(031-485-1199)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불을 끄고, 별을 켜다’ 4만7천여 가구 참여

제16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 · 소동행사 진행

안산시와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가 8월22일 오후 6시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제16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과 소동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의 에너지 플래쉬몹, 춤 공연, 색소폰 공연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시작했다. 특히 에너지 홍보대사로 안산 출신 개그맨 강성범 씨와 정승환 씨를 위촉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안산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이 가장 많은 도시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기후변화 시대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 가기 위해 4만7천여 가구의 안산 시민들

이 소동행사에 참여한다”며 “특히 올해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원곡동, 부곡동, 본오1동 등 주택에서도 동참해줘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안산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소동행사에서는 관내 51개 아파트 단지 4만 957가구와 6개 동의 주택 6천135가구 참여해 모두 4만7천 92가구가 불을 끄고 별을 켜는데 함께했다.

한편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 사무국은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햇빛 차단막 설치 ▲TV 셋톱박스 전원 끄기 ▲전기밥솥 보온기능 끄기 ▲창문 틈새 바람막이 갈아주기 ▲여름철 상가 문 닫고 영업



에너지 절약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

하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및 난방제품 사용하기 등 모두 6개의 ‘2019년 안산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2827)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



탄탄면(擔擔麵)



고소함과 매콤함을 동시에 즐기는 ‘탄탄면’

면요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이다. 다양한 면요리가 있지만, 그중 탄탄면은 매콤한 맛과 고소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단맛과 짠맛의 조화를 나타낸다는 말인 ‘단짠단짠’과 느끼한 맛과 매운맛의 조화를 나타낸 ‘느매느매’가 탄생한 가운데, 탄탄면의 인기 상승으로 고소함과 매콤함을 나타낸 ‘고매고매’가 새로운 탄생을 앞두고 있다.

탄탄면은 중국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라멘 스타일의 ‘탄탄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산 다문화음식거리에서는 사천식 탄탄면을 쉽게 맛볼 수 있다. 직접 먹어본 탄탄면(가격 6천원)은 마라탕과 비슷한 국물에 고소함이 더해졌고 땅콩을 씹는 맛이 좋고, 면은 살짝 단단해 덜 익힌 라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아할 맛이다.

탄탄면은 평행지계를 짙어진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국수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고 다니는 평행지계를 ‘탄탄이’라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 간단하게 판매하는 면 요리이기 때문에 조리법이 무척 간단하다. 그릇에 홍유를 넣고 노두유로 간을 맞춘 후 설탕을 약간 넣는다. 그 위에 삶은 중면을 얹고 홍유, 마늘, 두반장으로 매콤하게 볶은 다진 고기를 얹어 비벼 먹는다.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닭육수를 넣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 기름을 자작하게 부어 먹기도 한다.

탄탄면은 한 끼로 먹기보다는 보통 배고픔을 살짝 해소하거나 간식거리 정도로 먹고, 식사를 하기 전 또는 하고 난 뒤 먹는다. 이런 점을 모르고 탄탄면만 주문했다면 적은 양 때문에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지방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예전과 달리 각종 공과금 지로용지를 갖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일이 적어졌다.

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은행서비스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창을 열면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걸까? 국세를 납부하는 걸까?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써 보장을 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인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취득은 6개월)이내	
등록면허세	정기분(보통징수)	1.16.-1.31.	
	수시분(신고납부)	면허를 받은 때	
주민세	균등분	보통징수 8.16.-8.31.	
	재산분	신고납부 7.1.-7.31.	
	종업원분	신고납부 익월 10일까지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분		익월 10일까지
재산세	보통징수	7.16.-7.31.(주택1/2, 건축물)	
		9.16.-9.30.(주택1/2, 토지)	
자동차세	제1기분	보통징수 6.16.-6.30.	
	제2기분		12.16.-12.31.
	연납(선납)	신고납부 1, 3, 6, 9월(16일~말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하게 된다)

◇ 보통징수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 편의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및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 계좌이체·ARS :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의 지정계좌로 이체. 고지서 분실시 ARS전화(상록구 1588-5128 / 단원구 1588-6128)
- 온라인 납부 : 온라인 사이트 혹은 앱을 설치하여 납부(위택스-서울 외 지역, 이택스-서울)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주세요'

안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생활불편신고 앱(스마트폰)에 의한 24시간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며,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및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유의할 점은 정차시간에 관계없이 약 5분 이내의 정차, 아파트 단지 내부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조·변조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및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는 구역 안쪽, 앞쪽, 뒤쪽,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모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 문의 :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65)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 ◆ 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위반 사례

-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결혼식에서의 주례
- **구호·의연금품 제공** - 구호기관 등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해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식사·다과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의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무료민원상담 등**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무료 상담,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등 제공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번없이 '1390'(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은 익명으로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앞장선다!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어린이의 영구치 어금니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충치예방인 치아홈메우기(실란트)를 연중내내 실시한다.

영구치 어금니는 좁고 깊은 홈이 있어서 음식물이 잘 끼고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칫솔질을 해도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아 세균의 서식처가 되어 충치가 잘 발생한다. 치아홈메우기는 치아의 홈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줌으로 충치 발생을 감소시키는 시술법이다.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안산시지원 양치시설 설치학교인 상록구 관내 학교(이호초, 삼일초, 안산부곡초, 시랑초) 아동, 단원구 관내 학교(관산초, 원일초, 안산원곡초, 덕인초, 안산서초, 안산석수초) 아동, 장애카드 소지 아동(본인), 의료급여, 차상위 대상자(1, 2종), 3자녀이상 다자녀 아동, 한부모가정 자녀,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실 아동이다. 진료비는 무료이며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 치과진료실(031-481-5997) 단원보건소 치과진료실(031-481-6763)

안산시 '해피빈 절주학교' 제3기 수강생 모집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9월17일부터 11월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주 1회, 총 10회기 과정의 제3기 '해피빈 절주학교'를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음주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가족,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알코올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선착순 15명이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안산시 고위험 음주율(23%)은 경기도에서 네번째로(통계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 높고 고위험 대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음주폐해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9월부터 술로 인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절주 또는 단주를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해체 위기에 직면한 가족의 문제를 돕고자 '해피빈 절주학교'를 운영해 지금까지 총 3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매 회기별 진정한 나 되찾기, 스트레스와 건강한 삶, 가족 간 이해하기 등을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해피빈 절주학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ansanacc.or.kr>) 또는 전화(031-411-8445~6)로 문의하면 된다.

해피빈 절주학교란?
술로 인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교

3기 해피빈 절주학교 4강생 모집

2019. 09. 17(화)~11.19(화) 19:00~21:00
(주 1회씩, 10회기 과정)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 또는 가족 ·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지 아니한자 · 알코올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p>※ 선착순 15명 마감</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주 또는 단주를 통한 행복한 삶 찾기 · 나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 되찾기 · 가족 이해를 통해 가족 공동체 회복
<p>신청방법</p> <p>센터 홈페이지 통한 신청서 접수 안산시중독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ansanacc.or.kr 교육/행사 신청</p>	<p>참가비용 무료</p> <p>문의 031-411-8445-6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연성)</p>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아두면 좋은 보건소 소식! 건강 알림 마당

심폐소생술 무료교육 안내

-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이론교육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 ◇ 교육대상 : 안산시민 ◇ 교육일시 : 1~12월
- ◇ 교육일정/교육장소

교육일정	교육장소
월요일 오전 10~12시	단원보건소 4층 심폐소생교육실
화요일 오후 4~6시	
목요일 오후 4~6시	

- ※ 교육수료후 이수증 발급.
- ◇ 문의처 : 단원보건소 ☎ 031-481-6385)

2019-2020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및 기간

구분	접종 대상자	접종 기간	접종 기관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19. 9.17.(화) ~ '20. 4.30.(목)	전국 지정의료기관
	1회 접종 대상자	'19. 10.15.(화) ~ '20. 4.30.(목)	
임신부	-	'19. 10.15.(화) ~ '20. 4.30.(목)	
어르신	만75세 이상	'19. 10.15.(화) ~ '19. 11.22.(금)	
	만65세 이상	'19. 10.22.(화) ~ '19. 11.22.(금)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만 50세~64세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9. 10.22.(화) ~ '19. 11.22.(금)	안산시 어르신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
기타	만65세 미만 만성 질환자 (당뇨, 호흡기, 심혈관질환 등)	'19. 10.22.(화) ~ 소진시	상록수 및 단원보건소

-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참고
- ◇ 접종장소 : 안산시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 232개소 (단원구 127개소, 상록구 105개소)
- ◇ 접종비용 : 무료
- ◇ 준비물 : 신분증, 예방접종 안내 우편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만 해당)
- ◇ 문의처 : 상록수보건소(031-481-5892) 단원보건소(031-481-6471)

'생명사랑 걷기축제' 건강체험 한마당

생명존중 및 장애 편견해소, 사회통합의 장 마련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는 9월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안산문화광장(전망대광장)에서 '생명사랑 걷기축제'와 연계한 건강 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생명사랑 걷기대회'는 2017년부터 시작돼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몸과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안산시약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관내병원 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체험을 즐기도록 마련돼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의 장이 되도록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상록수·단원보건소, 정신건강센터(3개소),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건강체험관, 마음힐링 체험관, 일반체험관 등 58개가 설치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건강 체험 한마당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와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실천 의지 향상으로 건강도시 안산 만들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6751)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안 쓰는 물건, 공유박스에서 필요한 사람과 나눠요



사동주민협의회는 사동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1층에 '우리 동네 공유박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마을 거점 곳곳에 설치된 공유박스는 안 쓰는 물건이나 작아진 옷, 신발 등을 누군가 기부하면 필요한 이웃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동네 공유박스'는 불필요한 소비와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면서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

된 '공유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동주민협의회 공유경제분과에서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동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사동에 공유박스는 총 3개가 설치될 계획이다. 현재 공유박스 1호와 2호는 사동주민센터와 복합문화공간 마을숲(상록구 석호로 212) 1층에 설치됐고, 3호는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상록구 네고지1길 14)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빨강, 파랑, 연두, 노랑색 나무박스를 연결한 공유박스는 사동주민협의회 공유경제분과 위원들이 목공방에서 직접 나무 재단부터 사포질, 색칠 공정을 한 후 설치했다. 분과위원들은 날짜를 정해 공유박스를 점검하고, 활발한 운영을 위해 회의 때마다 공유박스에 넣을 물건을 가져다 놓겠다는 약속을 정하기도 했다. 김정숙 사동주민협의회 공유경제분과장은 "가정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마을에서 나눔의 선

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아 시작하게 됐다"며 "공유박스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채워지고 빠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옥상텃밭에서 기르는 상추를 가져다 놓으면 채 5분도 안 돼 사라진다"며 웃음을 지었다. 공유박스를 이용하는 정화영씨는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면 집안 공간도 넓힐 수 있고, 물건을 가져가면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공유박스에서 물건을 나누며 주민들과 작게나마 소통하는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사동에서는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안 쓰는 물건을 이웃과 직접 나누는 베품시장 형태의 공유장터도 열린다. 사동 주변 공원에서 매년 4회 열리는 공유장터는 주민들과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로 운영된다. 공유장터는 9월28일 석호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문의 : 사동주민협의회 공유경제분과(010-3707-437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본오1동

찾아가는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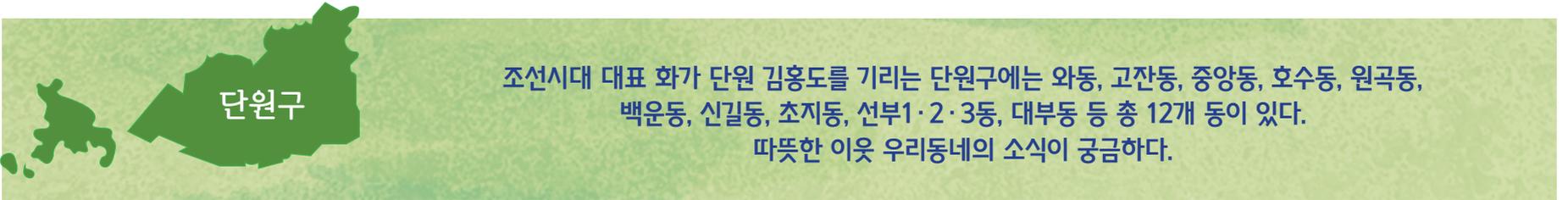
본오1동주민자치위원회가 담원경로당과 본오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9년 마을혁신 기반구축사업의 하나인 '찾아가는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다. 찾아가는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은 올해 선정된 경로당(담원, 본오, 이호) 세 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요가, 노래교실을 주 1회 수업으로 총 32회 진행할 예정이다. 임재연 주민자치위원장은 "흥겹게 노래를 따라하며 춤추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 사업이 어르신들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 무려한 일상에 활력을 부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오2동

'한여름 밤의 다운 문화 축제'성황리에 마쳐



본오2동행정복지센터는 8월 24일 보니마을 다운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본오초등학교 체육관에서 '2019년 한여름 밤의 다운 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는 추진위원회와 본오2동행정복지센터가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을 선보이기 위해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 직접 준비한 마을축제로, 관내 초·중·고 동아리팀 4개 학교 5개 팀(본오초 본오해오름, 본오중 난타, 본오중 타이밍, 석호중 어택, 상록고 비아트리스)이 난타, 댄스, 사물놀이 등으로 재능을 뽐냈고,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아티스트 신용국의 풍선을 이용한 재미있는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높였다. 또한, 공연 후에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말모이'를 상영해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에 참여한 한 주민은 "주말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축제에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공연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호덕 본오2동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를 열어 본오2동이 더욱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백운동

‘청소년 탐험대 해커톤’ 오리엔테이션 개최



백운동주민자치위원회는 백운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청소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동 청소년 탐험대 해커톤’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백운동 청소년 탐험대 해커톤’은 안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추진 중인 ‘2019년 마을혁신기반구축사업’의 백운동 자체 기획 프로그램으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한정된 시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쉽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백운동은 마을 공동체 참여 주체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분과 및 희망마을사업추진단과 여러 번 기획회의를 열고 1단계 ‘참여자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2단계 ‘청소년 탐험대 해커톤 본 행사 개최’, 3단계 ‘해커톤 결과에 따른 사업 실행’ 등 단계별로 사업을 계획했다.

백운동 청소년 탐험대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자의 관심과 역량을 고려해 3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구성원 간 상호이해의 시간 및 마시멜로 챌린지 등 팀빌딩 게임을 진행하며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백운동, 얼마만큼 알고 있니?’라는 2단계 본 행사과제에 대해 강한 흥미를 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우리 백운동은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원들과 상의해 태극기 거리를 알릴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경숙 백운동장은 “백운동 청소년들의 마을 공동체 참여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놀랍고, 백운동을 홍보하는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중 예정된 2단계 ‘백운동 청소년 탐험대 해커톤’ 행사는 ‘백운동, 얼마만큼 알고 있니?’라는 공통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백운동만의 자랑거리를 찾아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백운동을 홍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분임별 준비한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부1동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선부1동행정복지센터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2019 마을혁신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8월14일과 15일 이틀간 ‘함께 웃는 우리동네, 다같이 놀자! 선부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막바지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 및 버스킹을 통해 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선부광장이 문화행사와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선부1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난타와 키즈댄스의 공연이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 줬다.

선부1동마을만들기주민협의회는 지난달 커피바리스타 초급 과정을 이수한 주민들과 함께 핸드드립 시음회를 진행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 커피향과 공연이 어우러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안산소방서와 연계해 물놀이에 앞서 여름철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이웃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실습도 했다.

임병권 선부1동장은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함께 참여해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돼 기쁘고, 선부광장을 거점으로 선부1동 주민뿐만 아니라 선부2·3동 및 인근 동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면서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동

마을에 예술을 입히다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주공6단지 아파트와 경안고등학교 사이에 조성된 통학로에 담장벽화거리를 조성했다. 이곳은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잦을뿐 아니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면서 노후화된 담장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경안고 미술선생님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멋진 작품으로 새롭게 단장한 담장은 파란 배경에 학생들의 사계절 학교생활을 표현했으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척척했던 학교 담벼락에 시원스런 그림이 그려져 마을 분위기가 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확대돼 더욱 더 걷기 좋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중앙동장은 “우리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마을 학생들의 손으로 이룬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보람과 큰 자긍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원한 가을하늘 아래에서 예술 즐겨요...제33회 별망성예술제 개최 이달 27~29일 선부광장 일대에서 제40회 경기종합예술제와 함께 진행



별망성지에 서린 안산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안산의 자랑 성호 이익의 애민정신과 상록수 최용신의 봉사정신을 계승하는 취지의 별망성예술제가 올해로 33회를 맞는다. 안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제이자, 안산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제33회 별망성예술제가 27부터 29일까지 사흘에 걸쳐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예술제는 제40회 경기종합예술제와 함께 진행되며, 안산예총과 경기예총이 공동 주최한다. 그간 별망예술제는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별망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순수뮤지컬, 갈라뮤지컬, 퓨전뮤지컬 등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별망성 축조시기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볼거

리들은 가족 사랑과 호국의 정신을 예술제로 계승하고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73호인 별망성은 서해바다 물목이 내려다보이는 요충지로 외세의 침략에 맞선 보루이자 진영 터였다.

안산예총은 올해 별망성예술제의 슬로건을 '감동과 Fun Art Festival(감동과 재미있는 예술축제)'로 내걸고 별망성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개작적으로 설정, 퓨전 뮤지컬 '별망아리랑'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안산시 초·중·고 학생들의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어울림한마당과 가수 민경훈, 경기심포니의 합동공연도 마련됐다. 마당극 '별망품바'와 경기무용제 '가을의향기', 스토리텔링 오페라, 영화ost와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다. 재능을 뽐내고 싶은 시민은 사전에 안산예총에 신청해 예술제 마지막 날인 29일 열리는 시민장기자랑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또 사진전, 건축전, 영화포스터전, 미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프리마켓, 푸드트럭, 소원성쌍기, 승마체험 등 많은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시원한 가을하늘 아래에서 안산문화예술인들이 준비한 예술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 33회를 맞는 별망성예술제는 안산시 고유의 지역문화제로 자리 잡았다"며 "가족, 친구, 연인들끼리 축제장을 찾아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사)한국예총(031-485-3844)

‘교통안전&풋볼탐험대’

안산상록경찰서와 함께한 안산그리너스FC

안산그리너스FC는 8월23일 와~스타디움에서 안산상록경찰서와 함께 예술인 유치원 원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풋볼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안산그리너스FC는 2017년 창단 이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민들과 꾸준히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날 안산상록경찰서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과 여러 상황에서 안전하게 길 건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모형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습을 통해 조금 더 쉽게 교통안전에 이해하도록 도왔다.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는 "안산그리너스FC 선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그리너스FC 관계자는 "아이들이 축구뿐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안전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며 안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그리너스FC는 앞으로도 안산상록경찰서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연명층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안산 그리너스 FC는 9월1일 오후 7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태극 Day'를 주제로 광주와의 홈경기를 치른다.

◇ 문의 : 안산그리너스FC(031-480-2002)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토닥토닥 응원단 ‘환경미화원을 응원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토닥토닥응원단이 지역사회를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매달 찾아가 응원하고 있다.

8월에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찾았다. 토닥토닥응원단은 더운여름 무더위와 맞서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적은 메시지를 쿨스카프에 부착해 완성한 선물과 응원문구피켓을 들고 8월8일 상록구청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200여명의 환경미화원들 앞에 나섰다.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린 후 교육이 시작되기 전 무대에 올라 '항상 깨끗한 거리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꼭 먼저 인사를 드리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상치 못했던 토닥토닥응원단의 응원선물을 받은 환경미화원들은 웃음이 만개한 얼굴로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웃을 응원하는 문화가 안산시에 깊숙이 자리잡을 때까지 토닥토닥응원단은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411-1365)



기획행정 · 문화복지 · 도시환경추, 시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256회 임시회 관련 안건 및 주요 현안 논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도 안산시 집행부와 잇달아 간담회를 열어 제256회 임시회 관련 안건을 비롯한 시정 현안 파악에 열을 올렸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는 시 정책기획관과 상생경제과를

비롯한 15개 부서로부터 청년배당 조례 개정과 행복마을관리소 본사업 운영 등 총 33건에 대해 보고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도 시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등 12개 부서 담당자들과 한

국전통문화제(영산재) 개최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39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는 안산도시개발(주) 측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시 도시계획과 포함 11개 부서가 제출한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8건을 논의했다.

256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3개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된 간담회에 높은 참석률을 보인 의원들은 시정 현안 파악에 적극 임했던 것은 물론,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재차 확인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 시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들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보완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다가오는 임시회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시 집행부와와의 간담회를 마친 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의 본 심사를 진행한다.

안산시 청소년의회, 의장단 구성 완료 “청소년 눈높이 정책 제안 기대”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지역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역할 이해 및 입법체험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2019년 안산시 청소년의회’가 최근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7월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안산시 각 중학교에서 선발된 청소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실제 의회의 의장단 선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김주란(안산성호 중 3학년) 청소년의원이 의장에, 권시윤(반월중 3학년) 청소년의원은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당당하게 선출된 이들 청소년의원들은 동료 의원들과 화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로써 의장단 구성을 마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발전 및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올 가을에 열릴 최종 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청소년 의원들은 앞으로 1인 1정책을 수립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는 제안 설명 및 찬반토론 과정을 거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김동규 의장은 청소년의회 1차 본회의 축사에서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또한 우리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On Air’

의사일정 전 과정 인터넷 생중계,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시청가능



안산시의회가 최근 구축한 상임위원회 생방송 장비. 이 장비를 통해 최대 4개 채널의 방송 송출이 가능하다.

안산시의회가 오는 제256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포함, 의사일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55회 임시회 중 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시범 중계를 마친데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개최되는 256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다.

의회는 이를 위해 앞서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방송 중계 모듈과 본회의장·상임위원회실·대회의실용 HD급 카메라 및 음향 장비의 설치를 완료했다.

의회는 이번 구축 작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상 편의성을 높이고자 발언자 마이크와 방송 카메라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의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고성능의 프로그램으로 교체하고 스트리밍 및 VOD 서버를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회의 영상과 활자 텍스트가 함께 구현되는 영상 회의록 시스템도 선보이며 이전보다 개선된 사용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의회 생방송 시스템의 구축과 시범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들은 직접 의회를 찾아가 방청하는 수고 없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의사일정 모두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김동규 의장은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까지 생중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의회 구성원 간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의회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안산시의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 의사일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http://vod.ansan.go.kr/>)로 접속하면 된다.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재미있는 모래놀이

아기이름: 이태호 출생년월: 2018년 8월 태명: 행운이
태몽: 태호아빠가 금은방에 커플링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주인이 큰 황금반지를 건네주는 꿈

태호는 광복절에 태어난 광복둥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기를 데리고 이번 여름에는 시골에 있는 언니네로 놀러갔어요.

겨울에는 함께 눈을 만지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함께하자. 사랑해.

• 이유경(단원구 초지동)

모래놀이를 너무나 재미있게 하는 우리 태호. 벌써 이렇게 자라서 아장아장 걸어나다니 놀이를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새삼 신기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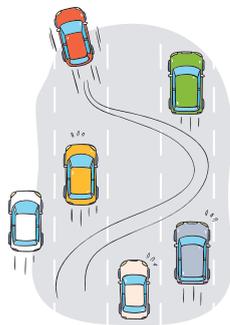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큰 감동을 가져다줄지 몰랐어요. 엄마가 된다는 것에 부담과 책임감이 생겼지만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태호야! 여름에는 해변에 놀러 가 모래놀이를 하고



법률상식!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최근 제주도에서 무리한 앞지르기를 한 운전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던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산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는 아내와 아이 둘이 같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 부인이 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가해자가 이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피해자의 아이들은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인데 운전 중이던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충격으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폭행과 손괴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또 한 번 분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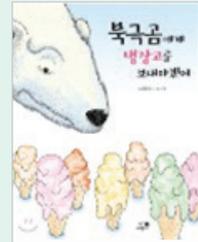
운전자 사이에서 생긴 감정적 다툼이 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것을 '난폭운전'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보복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하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은 이러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 규정에 맡겨져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상대방운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시한폭탄으로서 엉뚱한 제3자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손괴 등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훨씬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난폭·보복운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해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난폭·보복운전은 그 자체로 테러에 가까운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도 감정의 불구덩이에서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교통문화를 후진적이고 야만적으로 퇴행시키는 무거운 범죄이다.

• 김성천 변호사

책 읽는 안산 / 9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마음의 휴가지가 되는 책

아동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저자 김현태 / 출판사 휴먼어린이

북극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북극곰 '베베'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겪는 문제를 경쾌한 글과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시원하게 펼쳐낸 환경 동화 그림책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 수 없게 된 북극곰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환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일깨워주고 있다.

청소년



딜쿠샤의 추억

저자 김세미, 이미진 / 출판사 찰리북

딜쿠샤는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3.1 독립 선언서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엘버트 테일러가 미국으로 추방될 때까지 거주한 곳이다. 이 책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집 딜쿠샤를 화자로 하여 192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서울을 관찰한 모습을 들려준다.

성인



리스본행 야간열차

저자 파스칼 메르시어 / 출판사 들녘

라이문트 그레고리우스는 고전문헌학을 가르치는 교사다. 이순을 코앞에 둔 그의 삶은 단조롭고 경직되어 있다. 그런 그가 생애 최초로 일탈을 감행한다. 그가 자살을 막은 출근길에 만난 낯선 여인은 그레고리우스의 이마에 숫자를 적는다. 모국어가 뭐냐고 묻는 그레고리우스에게 여인은 "포르투게스"라고만 대답한다. 그 단어의 독특한 울림에 이끌린 그레고리우스는 돌연 일상에서 낯선 세계로 눈을 돌린다. 그리고 일정도, 기한도 정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대부도의 석양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시작되는 계절이 오네요. 직장인인 저에게는 평일에 출근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역시 늦잠이 최고! 늦막이 일어나 준비를 하면서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가장 뜨거운 낮시간을 보냅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함께 신나는 노래를 틀고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차가 많던 공단 지나가는 길도 주말에는 뺑~ 뚫려 운전하기도 편한 느낌입니다.

공단을 지나 대부도로 들어가는 시화방조제를 달려 시화나래휴게소에서 잠시 멈춥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360도 전경의 경치를 볼 수 있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멈춰 경치를 감상하고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단골 칼국수집에서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대부도로 넘어갑니다.

칼국수는 역시 바닷가에서 먹어야 더 맛있는 기분! 조개가 왕창 들어간 칼국수를 먹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부도의 아름다운 석양을 기다립니다.

석양을 볼 수 있는 나만의 선셋포인트를 찾아 자리를 잡고 하늘색에서 노란색, 주황색, 다홍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을 지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진도 찍고 오늘 본 영화 얘기,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주말을 마무리합니다.

안산에 오래 살았다면 저만 알고 있는 코스는 아니겠지요? 멀리 갈 필요없이 바다에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는 안산이 좋습니다.

· 박정민



독자 투고

비가 오는 날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젊은 공무원을 보며...

오랜만에 비가 쏟아진다.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지난 7월에 놀러갔던 계곡이 떠올랐다.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계곡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몸을 담가 놀기엔 찝찝해 보였다.

‘이 비가 다 내린 뒤에 계곡에 가면 시원한 물에 놀 수 있었을 텐데...’

이쉬움을 뒤로 출근길을 나섰다.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올해는 유독 가뭄이 많은 분들이 비가 내리길 기다렸다고 하는데 나 같은 뚱뚱이족(차 없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비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집이나 카페에서 빗소리를 들으면 창밖을 보는 것만큼 운치 좋은 것도 없지만 출근길에 내리는 비라니...

출근을 안 할 순 없으니 비가 내리는 걸 감안해서 평소보다 다소 일찍 길에 나섰다. 세차게 떨어지는 비에 바람까지 부니 파라솔 같은 대형 우산도 아무 쓸모없이 바지랑 팔이 다 젖는다. 우산을 꼭! 눌러 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원래 가깝지 않은 버스 정류장이 오늘따라 더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다 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뺑하니 도로를 지나가면서 나한테 물이 한가득 튀었다. 가뜩이나 많이 젖은 옷이 마른 부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흠뻑 젖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욕을 한가득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부글부글 끓는 속은 이내 도로에 가득 고인 물을 보고 분노의 대상을 옮겼다.

‘아~!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야! 물이 이렇게 많이 고였는데 뭣들하고 있는거야?!’

입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은 짜증과 욕을 대신 해줬다. 온몸이 너무 젖어 버스를 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걸어가기로 했다.

일찍 나와서 걸어갈 시간은 충분했다. 어차피 흠뻑 젖어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빗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도 불편하게만 느껴지진 않았다. 그렇게 건다 이상한 남자를 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비가 가득 고인 도로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중요한 물건이라도 떨어뜨린건가?’

이내 그 남자는 무엇인가 건져 인도 한쪽으로 던졌다. 자세히 보니 낙엽이었다. 그렇게 그 남자가 낙엽을 몇 번이나 건져 인도쪽으로 던지고 나니 한 가득 고인 물들이 시원하게 배수로로 내려갔다. 내 가슴도 무엇인가 뺑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다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고인물이 다 빠지자 그 남자는 손으로 주변의 낙엽을 하나하나 다 모은 뒤 트럭 뒤에 싣고 떠났다. 떠나는 차 한 편에 ‘공무수행’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출근하는 내내 우산도 없이 흠뻑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수구를 뚫는 그 남자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속으로나마 잠깐 욕을 했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나에게 닥친 불편의 한 부분만 보고 일반화해서 욕하고 짜증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

나랑 나이차이도 얼마 나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며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께 이 말을 꼭하고 싶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 김병철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수기

주제 안산시민 생활담 (자유주제)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안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



- ◇ 일시 : 2019.9.4.(수) 오후 2시
- ◇ 장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3층 컨벤션홀
- ◇ 내용 :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설명, 비전선포 등
- ◇ 문의 : 안산시 산업진흥과(031-481-2859)

신안산선 착공식

- ◇ 일시 : 2019.9.9.(월) 오후 3시(예정)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내용 : 신안산선 공사계획 및 사업개요 설명 등
-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71)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명예기자 모집

- ◇ 인원 : 일반명예기자 0명, 사진명예기자 0명
- ◇ 접수기간 : 2019.8.21.(수)~9.6.(금)
-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 역할 : 지면 및 인터넷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기사작성
- ◇ 자격 : 기사 작성에 소질이 있으며 취재 활동 능력이 있는 자(관련 학과 전공 및 경력자 우대)
- ◇ 접수방법 : 이메일(ansannews@korea.kr)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안내 및 기타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2042)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 2019.9.5.(목) 오후 2시~4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채용 박람회

- ◇ 일시 : 2019.9.19.(목) 오후2시~5시
- ◇ 장소 : 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
- ◇ 주최/주관 : 안산시, 시흥시
안산고용복지센터, 시흥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일자리 유관기관, 부대행사 부스 운영
- ◇ 문의 : 031-481-2277/2919

제15회 안산 대부포도축제



- ◇ 일시 : 2019.9.7.(토)~9.8.(일)
- ◇ 장소 : 구)바다향기 테마파크 (단원구 대부북동 1841-10)
- ◇ 내용 : 대부포도직거래, 오감체험행사(왕포도밭기), 키즈존 운영 등
- ◇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 (031-481-2315)

제9회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 축제



- ◇ 일시 : 2019.9.27.(금)~28.(토)
- ◇ 장소 : 중앙도서관, 호수공원 중앙무대
- ◇ 대상 : 안산시민 6,000명
- ◇ 내용 : 북 콘서트, 안산의 책 작가 강연회, 시민참여 공연, 플리마켓 등
- ◇ 문의 : 안산시 중앙도서관 (031-481-3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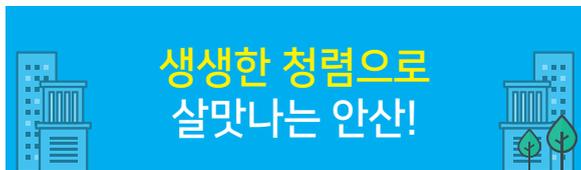
2019년 추석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중지 안내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업체 휴무 등으로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쓰레기(음식물 포함) 수거가 중지됩니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 수거중지 기간 중 재활용품 수거도 중지됨.

추석 연휴	9.12(목)	9.13(금)	9.14(토)	9.15(일)
수거 여부	정상수거	수거중단	수거중단	정상수거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0)



제4회 전국 대부해슬길 걷기축제



- ◇ 일시 : 2019.10.26.(토) 오전9시
- ◇ 집결장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단원구 선감로 255)
- ◇ 걷기코스 : 대부해슬길 5·6코스 10km(약 3시간)
- ◇ 참가비 : 1만원
-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www.ansantour.kr)
- ◇ 문의 : 1899-1720 (사)안산시관광협의회

2019 안산 김홍도축제



- ◇ 일시 : 2019.10.11.(금)~10.13.(일) 오전11시~오후8시
- ◇ 장소 : 화랑유원지 및 안산문화광장
- ◇ 주제 : '김홍도와 함께하는 풍류여행'
- ◇ 내용 : (화랑유원지) 개막식, 공연, 풍속촌, 체험프로그램, 사생대회, 플리마켓 등 (안산문화광장) 마차존, 전통놀이존, 공연존, 벼룩시장존, 특산물 판매존 등
-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안산시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접수한다. 안산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선정이 되면 지역화폐(다운카드)로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

3분기 신청 및 접수 대상은 94년 7월 2일생부터 95년 7월 1일생으로,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온라인 사이트(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10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문의 : 안산시 정책기획관(031-481-3908)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대 상 : 2019. 6. 1. 현재 주택(1/2), 토지 소유자
- ◇ 납부기간 : 9.16. ~ 9.30.
-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ARS 전화,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 ◇ 문의 : 상록구 세무1과(031-481-5203), 단원구 세무1과(031-481-6201)

환경을 위한 우리의 다짐

작은 습관 하나로 실천해요!

- 종이 절약** : 청구서는 이메일로, 개인 텀블러 쓰기
- 물 절약** : 양치할 때는 컵을 사용하자!
- 쓰레기 줄이기** : 티슈 사용을 줄이고 손수건으로 닦자!
- 강철 절약** : 스테이플러 대신 클립을 사용하자!

안산시 공식 방송채널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검색창에서

- 안산시 카카오투브
- 안산시 네이버TV
- 안산시 유튜브
- 안산시 네이버블로그TV